

전남광주특별시장 대진표 완성...정책 경쟁 '후끈'

6·3 지방선거 D-33

민주 민형배, 예비후보 등록 본선 등판 국힘 이정현, 파크골프장 1천개 등 약속 진보 이종욱, 전남 동부권 대전환 비전 정의 강은미, 노동특별시 10대공약 제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됨에 따라 각 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 거전에 돌입하며 정책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각 후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산업·노동· 균형발전·생활복지 등을 앞세운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본선을 1개월여 앞두고 선거전 초반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초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 정의 당 강은미 후보 등 4차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선거 출마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 “시민이 맡겨 주신 힘으로 검찰개혁의 거센 파도를 넘었고 단 식과 탄핵의 강을 건넜다”며 “이제 전남과 광주 가 하나 되는 통합의 현장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어 민 후보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대한 민국 지역주도성장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 겠다”며 “시민의 삶이 바뀌는 전남광주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시민주권,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 본사회, 녹색도시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10 대 정책도 제시했다.



광주, 다시 5월... 푸른 하늘과 신록이 어우러진 5월을 앞둔 3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정연한 묘역과 추모묘에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참배객들은 묘비 앞에 국 화를 올리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오늘의 삶에서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기고, 왜곡과 폄해를 막기 위한 책임을 되돌아본다. 46년이 흘렀지만 시민들의 오월 영령을 기리는 발걸음은 매년 이곳을 채우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약속의 완성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

주요 공약에는 시민권정부 운영, 전면적 행정 투명화·디지털 민주주의, AI·반도체·모빌리 티 중심 글로벌 기업 유치, 전남광주 전통산업 혁신·고부가가치화, 농어촌 기본소득+마을월 급 프로젝트, 돌봄·의료·교육 '기본사회 통합지 원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연일 정책 공약을 쏟아 내며 '30% 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고령사회 대응 생활체육 공약 으로 '광주·전남 파크골프장 1천개 조성'을 제안했 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집단 민원은파 크골프장 조성 요청”이라며 “이는 생활 민원을 넘 어 고령사회의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예방 의학 인프라”라며 “광주·전남에서 4년 동안 파크골프장 1천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이날 전남 동부권 대전 환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호남 대통 합이 성공해야 하고 호남 대통합의 성공을 위해 서는 전남 동부권의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이 추 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통합특별시 동부청사 신축, 순천·여수·광양 행

정통합 지원,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광양만권 반도체 팹·피지컬AI 센터 유치, 여수·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수소산단 추진, 국 제생태비엔날레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136주년 노동절을 맞아 ‘모든 노동 특별하게, 노동특별시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강 후보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비 정규직과 특고 노동자들의 유급휴무 비중은 40 %대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다수 시민을 지원하는 노동특별시장 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10대 노동 공약으로 '모두의노동기 금' 설치, 특별시 노동국 편제, 단체 교섭형 노정 교섭 보장, 권역형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안전 보건센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노란봉투법 지원단 운영, 이주노동자 노동권·권익 보호, 이 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 거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변은진 기자

※노동절·어린이날 대체휴무 4·5일자 신문입니다

알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5·18 詩 낭송회

29일(금)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광주매일신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를 개최합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주관으로 5월29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고 숭고한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날 시낭송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담은 다양한 시를 낭송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합니다. 시낭송에는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회원들이 주축이 돼 5·18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 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
- 일 시: 2026년 5월29일(금) 오후 3시
-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
- ◇주 최: 5·18기념재단·광주매일신문
- ◇주 관: 광주매일신문·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산림 100m 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방지 행동요령
및 QR코드